

## 농촌 다문화가족의 현황과 적응문제

이 순 형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 1. 농촌다문화가족의 증가 배경

농촌다문화가족의 증가는 노동시장 및 결혼시장의 구조의 변화와 관련되어 있다. 노동시장에 진출하는 여성인력의 진출이 점차 증가하여 여성이 노동시장의 1/2 정도를 차지하게 되었다. 안정된 직업을 가진 여성들이 결혼을 미루고 자녀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불거지면서 국내 결혼시장에서는 여성 부족 현상이 나타났다. 이로 인해 남성들은 국제결혼시장을 찾게 되었고 한국남성들과 외국여성들 사이에 국제결혼이 빈번히 이루어졌다. 더욱이 국제결혼을 알선하는 업체들이 생기면서 국제결혼이 대폭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물론 노동시장은 경제구조와 연계해 운영된다. 경제개발수준에 따라 국가 및 가정의 경제수준이 정해지면서 경제수준이 낮은 국가의 여성들이 경제수준이 높은 국가의 남성과 결혼을 하여 사회적 지위 상승을 꾀한다. 한국남성들에게 시집온 여성들이 대부분 한국보다 경제개발수준이 낮은 인접 국가출신이라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중국, 태국, 베트남, 몽골, 캄보디아 등 아시아 인접 국가의 여성들이 사회적 지위 상승을 위해 한국 남성에게 시집 와서 정착하고 있고 유일하게 일본 여성들은 종교적 이유로 한국남성에게 결혼하는데 이들의 국적 취득 비율이 낮다는 것이 또한 국가간 경제관계에 대한 인식으로 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실제로 2000년 들어서 현재까지 한국인의 국제결혼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0년에는 전체혼인 가운데 한국인과 외국인과의 혼인 비율이 3.7%이었지만 2005년에는 13.6%였으며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또한 전체 국제결혼건수의 약 70% 이상이 한국남성과 외국 여성의 혼인으로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의 통계를 보면,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남성 가운데 10명 중 4명 정도(35.9%)가 외국 여성과 혼인하였다.

출신국가별로 국제결혼 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의 혼인 총 31,180건 중 중국이 20,635건(66.2%), 베트남이 5,822건(18.7%), 일본이 1,255건(4.0%)이었다. 베트남 여성과의 혼인이 최근 5년 만에 약 600%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현상은 농촌지역에서 두드러진다. 반면에 2005년 한국 여성과 혼인한 외국 남성 총 11,941명 중 중국 남성이 42.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일본 남성이 30.8%, 미국 남성이 11.8%이었다.

농촌지역의 국제결혼이 증가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내국인 여성들이 농촌 및 도시 빈곤층 남성과의 결혼을 꺼리기 때문이다. 정부도 결혼이민 정책을 실시해 농촌 남자들이 중국 연변지역의 여성들과 혼인하는 것을 지원하기도 했

다. 연변지역 여성은 중국인이지만 동족이고 언어가 소통된다는 이유에서였다. 결혼이민 온 중국 여성들이 이혼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위장결혼과 계약결혼의 사례가 자주 생겨 국제결혼의 주 대상이 중국으로부터 동남아시아 여성들로 전환되었다.

국제결혼 상대인 동남아시아 국가의 여성들은 빈곤과 실업환경을 탈출해 상대적으로 부유한 국가로 이동하여 본국 가족부양의 의무를 담당하려고 국제결혼을 선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외에도 글로벌체제로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가족부양의 의무 못지않게 계층 상승이나 새로운 삶에 대한 욕망이 여성들을 글로벌 차원의 결혼시장으로 편입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김정선, 2004). 따라서 국제결혼의 증가는 여성 본국의 가난과 실업이라는 경제적 요소들과 함께 더 나은 삶에 대한 대안으로 국제결혼을 선택하게 되는 데 그 이유가 있다.

오늘날 동남아 여성들의 국제결혼 결정으로 한국사회는 세계화와 개방화의 물결에서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과 다양한 유형으로 결혼이 이루어지고 있다. 1990년대 이후 국제결혼이주가 증가하자, 이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한국사회의 국제결혼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석원정, 2004; 이금연, 2001, 2003; 최근정, 2003)이 소개되고, 중국교포 여성에 대한 연구(민가영, 2004; 성지혜, 1996; 홍기혜, 2000)와 국내로 유입된 외국인, 특히 아시아 이주노동자와 한국여성간의 국제결혼에 대한 연구(김정선, 2004; 전수현, 2002; 조성원, 2000)에서 이들의 국제결혼의 과정과 적응 및 갈등 경험을 밝혀주고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특히 이들에게 가해지는 가정폭력의 사례(광주여성발전센터, 2003; 위훙, 2003)도 보고되고 있다. 특정 지방자치단체는 도내 외국인 주부에 대한 실태 및 사례연구(김애령, 1998; 민경자, 2003)를 통해 이들에 대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들이 여러 차례 연구가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한국사회에서 국제결혼이란 현상이 가시화된 지가 약 10년 정도에 불과하므로, 한국에서는 아직 국제결혼에 대한 연구가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다. 비록 몇몇 연구가 참여관찰을 통해 국제결혼 가정에 대해 깊이 있는 내용을 전하고는 있으나, 아직 그 수가 적고 특정집단의 사례에 편중되어 있는 편이다. 아직 체계적으로 이들의 실태와 문제를 조사한 연구가 별로 없어서 마땅한 자료를 찾기 어렵고 그를 토대로 지원정책을 마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 2. 농촌다문화가족의 현황<sup>1)</sup>

### 1)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관련 현황

1) 이 부분의 내용은 이순형·문무경·최연실·이숙정·정하나·우현경(2006)의 연구를 토대로 구성되었다.

법무부는 2001년 3월 20일 방문동거자격(F-1)으로 입국,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체류자 40,133명 가운데 20,170명(50.2%)이 한국인과 결혼한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밝혔다.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의 국적은 유럽에서 아프리카까지 85개국에 이르는데, 그 가운데 중국인이 7,443명(36.9%)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인 6,237명(30.9%), 필리핀인 2,758명(13.7%)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재중동포(조선족)가 6,351명으로 85.3%를 차지했다. 흔히 조선족과 한국인 간의 결혼은 ‘동족 간의 결합’으로 여겨지는데, 1990년부터 이루어진 중국 조선족 여성과 한국 남성 간의 결혼은 한국 국제결혼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1년까지 결혼을 통해 한국으로 입국한 조선족 여성은 약 4만 명이 넘을 것이라고 한다.

한국농촌의 국제결혼은 주로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의 결혼 형태를 띤다.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의 결혼자 중에 초혼이 절반을 넘는다. 한 예로 농림부 조사(이순형 외, 2006)에 의하면 농촌 국제결혼자 926명 중 둘 다 초혼인 경우가 62.1%로 가장 많았다. 한편 남성이 재혼이고 여성은 초혼인 경우에 여성의 출신국으로는 중국 동포, 중국 한족, 베트남, 필리핀, 몽골이 많았다. 반면, 일본여성의 경우 남편과 부인 모두 초혼인 경우가 91.0%로 다른 어떤 출신국의 여성과의 결혼경우보다 비율이 높았다.

여성결혼이민자의 평균 연령은 34.3세, 그들 남편의 평균 연령은 41.3세이었으며, 부부간 연령 차이는 평균 7세로 남편의 나이가 더 많은 편이었다. 출신국별로 보면 베트남 여성의 평균 연령은 26.7세이고 그들의 남편은 평균 38.1세이어서 나이차가 평균 11.4년으로 부부간 연령차가 가장 컸다. 한편 일본 여성은 평균 39.0세이고 그들의 남편은 평균 40.6세이어서 나이차가 평균 1.6년으로 가장 작았다. 이러한 연령 차이는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데 하나의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인지는 의문이다.

농림부 연구(이순형 외, 2006)에서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 총 164명 중 68명은 베트남, 36명은 일본, 15명은 중국, 45명은 필리핀 출신이었는데, 이들 중 베트남 여성들이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남편을 소개받은 비율이 가장 많았으며(77.9%), 일본(100%)과 필리핀(73.3%)은 종교단체(통일교)를 통해 소개받은 비율이 높았다.

현재의 남편과 결혼하기까지 몇 번을 만났는지를 부인에게 물었을 때, 32.1%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즉, 처음으로 직접 만나서 곧 결혼한 경우의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3분의 1 가량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사 대상자의 결혼 유형을 살펴보면 초혼인 경우가 96.1%이었으며 재혼인 경우가 3.9%로 나타났다. 남편의 경우 초혼인 경우가 80.1%이었으며 재혼인 경우 18.3%이었다. 결혼이민자 가정의 가족구성으로는 부부와 시댁가족이 함께 사는 경우가 25.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이 사는 경우(21.8%), 부부끼리만 사는 경우(21.1%), 부부와 자녀 및 시댁가족이 사는 경우(20.4%) 순으로 많았다. 여성결혼이민자 147명의 평균결혼기간은 4.4년이었는데, 일본 여성의 경우 9.2년으로 가장 길었으며 다음으로 필리핀이

4.8년, 중국어 3.8년, 베트남어 1.4년이였다.

## 2) 농촌결혼이민자의 생활실태

### (1) 소통능력과 대화실태

여성결혼이민자는 자신의 한국어 말하기, 듣기, 읽기 실력에 대해 각각 35.0%, 34.2%, 30.9%가 그저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쓰기 실력은 그저 그렇다는 응답(28.1%)과 약간 서툴다는 응답(27.5%)이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남편의 본국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실력에 대해서는 각각 62.7%, 58.5%, 58.9%, 63.3%가 매우 서툴다고 응답하였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이 남편과 보통 이상으로 대화하는 비율이 약 95.1%이었으며 시댁 가족과 보통 이상으로 대화하는 비율은 78.7%로 남편과의 대화 빈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신국별로는 베트남 여성(3.48점)과 필리핀 여성(3.59점)이 일본 여성(3.11점)보다 남편과 대화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간 대화와 시댁가족과의 대화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하루 일과에 대한 대화가 부부간 대화 및 시댁가족과 대화 모두 31.3%(부인응답), 40.0%(남편응답), 47.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즉 과반수 이상의 여성결혼이민자가 한국어 의사소통에 매우 서툴렀으며 시댁가족이나 남편과 하루 일과에 대해서만 주로 대화를 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본국을 떠나 타지에서 지내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언어 장벽에 막혀 심적인 외로움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을 드러내준다.

### (2) 남편의 가사보조

남편의 가사 및 육아참여 빈도를 조사한 결과 식사준비, 시장보기, 빨래, 청소 등 가사를 보통 이상 참여하는 경우가 63.3%이었고, 자녀와 놀아주기, 돌보기, 숙제 도와주기 등 육아에 보통 이상 참여하는 경우는 75.8%이었고, 친척 길흉사, 반상회나 주민모임에 보통 이상 참여하는 경우는 75.2%이었고, 구청이나 은행 일을 보는 등 공공업무에 보통 이상 참여하는 경우는 72.2%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남편의 가사참여도는 보통 정도이며 심층 면접에서도 여성들이 남편의 가사참여를 좀 더 요구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남편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 (3) 결혼생활에서 어려운 점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생활 중 가장 힘들었던 점은 한국문화 및 예절(24.3%), 친족관계(16.4%), 한국생활(12.5%), 자녀양육(11.8%), 음식 만들기(10.5%), 농사일(7.9%), 전통

의례(5.9%), 농촌생활(2.0%), 가사노동(2.0%)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생활 가운데 가장 힘들다고 생각되는 대인관계는 시부모(19.5%), 남편(18.8%), 친인척(9.7%) 순으로 나타났다. 48.1%는 다른 사람으로 인해 마음고생을 한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심리적으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여성들이 도움을 얻는 상대는 남편이 5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한국에 사는 본국 친구(24.5%), 본국의 친정부모 및 가족(11.3%) 순으로 나타났다. 이웃(1.3%)이나 시부모(2.6%) 및 시댁식구(2.0%)에게 도움을 얻는 경우는 매우 적었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이 남편, 시부모, 친구, 행정기관, 민간단체 각각으로부터 심리적 위로, 생활정보 제공, 방문 및 연락을 받는 정도를 살펴본 결과, 심리적 위로는 평균 3.90점(135명)으로 남편의 지원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친구(3.50점)였다. 생활정보 제공도 남편의 지원이 3.47점(129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친구(3.29점)이었다. 방문 및 연락은 친구의 지원이 3.60점(115명)으로 가장 높았다.

즉 여성결혼이민자는 그들의 결혼생활을 어렵게 하는 원인 중 문화차이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고 심리적으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자신과 문화적 배경이 같은 본국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들이 평상시에 본국인들과 접할 수 있는 기회는 제한되어 있으므로 가장 가까이에서 지내고 있는 시댁가족이나 남편과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며 본국가족들과 좀 더 자주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 (4) 자녀 양육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다니는 유아기, 학동기 자녀에 대해서 결혼이민 여성들이 걱정하는 점은 무엇인지 우선순위로 3가지를 선택하도록 했다. 이들은 순위에 상관없이 학업, 의사소통, 또래관계, 교육방식, 교사와의 관계, 잦은 부모참여 순서로 응답하였다. 자녀의 교사와 의사소통 하는 정도를 물어본 결과 '보통이다'라고 대답한 비율이 51.9%, '별로 못한다'고 대답한 비율은 27.8%, '잘하는 편이다'는 15.2%, '매우 잘하는 편이다'와 '전혀 못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2.5%였다. 교사와의 의사소통에서 여성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본 결과 72.2%가 한국어를 잘 못해서 교사와의 의사소통이 어렵다고 대답하여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자녀의 한국어 능력에 대해 질문한 결과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9.2%, 잘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5.4%, 매우 잘 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6.5%, 별로 못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9%로 대부분 여성들은 자녀들의 한국어 실력이 보통 이상은 된다고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녀가 주로 어떤 친구들과 어울리는지 질문한 결과 자녀가 구분 없이 모두와 잘 지낸다고 응답한 비율이 83.6%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대다수는 결혼이민자 가정의 자녀라고 해서 특수한 친구집단을 구성하여 어울리는 경향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다음으로

한국인 부모 가정의 자녀와 잘 어울린다고 응답한 비율은 9.4%이다. 나머지 결혼이민자 가정의 자녀와 잘 어울린다고 응답한 비율은 7.1%로 단지 이 소수의 경우만 국제결혼이민 친구집단을 형성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자녀의 집단 따돌림 경험을 조사한 결과 '없다'고 대답한 비율이 93.8%로 국제결혼 자녀들이라고 해서 특별히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물었을 때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78.5%, 공부 잘하는 것이 45.2%, 가족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23.7%, 사회에서 존경받는 것이 19.4%였다. 자녀교육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것이 무엇인지 물었을 때 1순위로 응답한 항목은 건강과 안전(42명), 주변사람들에 대한 예절(14명), 식습관(10명)이었으며, 순위에 상관없이 많은 선택을 받은 항목은 건강과 안전(56명), 예절(50명), 친구관계(33명), 언어발달(26명), 훈육방법(24명), 학업성적(23명)이었다.

자녀양육과 교육 시 어려운 점으로 3가지 항목을 우선순위에 따라 선택하도록 한 결과 1순위로 꼽은 항목은 사교육 또는 양육비용(36명), 돌볼 사람이 없는 점(18명), 건강관리(7명), 성적과 학습(7명)이었으며, 순위에 상관없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항목은 사교육 또는 양육비용(52명), 성적과 학습(29명), 돌볼 사람이 없는 것(28명), 건강관리(22명)였다. 혼혈인으로서 정체성 혼란(16명)의 경우 1순위로는 1명만이 선택했지만 3순위에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항목이었다. 자녀를 양육하는데 비용문제, 양육과 학업을 보조하는 문제, 그리고 정체성 문제를 걱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녀교육에 필요한 정보는 어디서 구하는지 물었을 때 1순위로 남편을 선택한 사람이 23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한국의 본국 친구(18명), 시부모와 친척(7명), 자녀의 교사(5명), TV 및 라디오(5명), 인터넷(4명) 순으로 나타났다. 순위와 관계없이 가장 많은 응답자(29명)가 남편을 선택하였고, TV 및 라디오(28명), 한국의 본국친구(25명), 자녀의 교사(19명), 육아서적과 잡지(18명), 인터넷(15명)의 순서로 지적했다.

평소에 자녀와 대화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질문한 결과 충분히 많이 한다가 29%, 매일 조금씩 한다가 28%, 너무 어려 아직 이야기를 할 수 없다가 24.7%, 필요한 경우만 한다가 16.1%, 거의 하지 않는다가 2.2%였다. 자녀와의 대화를 함에 있어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질문한 결과 과반 수 이상인 54.2%가 자녀보다 한국어를 못해서라고 응답하였고, 시간이 없어서가 13.6%, 자녀가 이야기 하고 싶어 하지 않아서가 6.8%였다. 가정에서 자녀와 주로 함께 하는 일을 조사한 결과 책 읽어 주기가 32.1%, 숙제와 공부 돕기가 22.6%, 놀이·게임·운동하기가 12.3%, 대화하기가 10.4%, TV보기와 가사일이 각각 4.7% 정도였다. 자녀 숙제를 도와주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조사한 결과 85.3% 여성이 자녀들의 숙제를 도와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의 숙제를 도와줄 때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66.2%가 한국어 능력의 부족을 지적했다. 자녀와의 전반적 관계, 함께 보내는 시간의 정도, 대화를 나누는 정도에서는 매우 만족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지만 자녀의 생활태도와 유치원/어린이집/학교생활 등에 대한 항목은 그저 그렇다 또

는 대체로 만족한다는 비율이 높았다.

농촌에 살면서도 자녀가 훗날 영농에 종사하기를 원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45.5%가 자녀가 영농일을 하기를 절대로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별로 원하지 않는다가 23.2%, 보통이다가 23.2%, 조금 원한다와 매우 원한다가 각각 6.1%, 2.0%로 조사되었다. 68.7%가 자녀가 농업을 선택하기를 바라지 않고 있다. 자녀의 이농을 원한다는 점에서 현재 농업을 하는 가정에서조차 농촌을 지킬 후속세대를 기대하기 어려울 듯하다.

#### (5) 친족집단의 교류

여성결혼이민자의 친정 부모의 국제결혼에 대한 생각은 전체적으로는 딸이 낯선 곳에 가서 고생할까 걱정하는 경우(54.4%)가 많았다. 이들의 59.9%가 결혼 후 본국에 다녀온 경험이 없었으며, 25.8%가 본국의 가족들이 한국에 다녀간 적이 있었고, 21.7%가 시댁 가족들이 본국에 다녀온 적이 있었다.

친정 가족을 만난 후 시댁 가족들의 본인에 대한 태도를 살펴본 결과는 좋아진 경우가 41.7%였으며 변화가 없는 경우가 56%였고, 더 나빠진 경우는 2.4%였다. 친정 가족들이 시댁 가족과 만나 교류하는 것이 관계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국 부모님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준 적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54.7%,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45.3%로 유사했다. 경제적 조력은 출신국의 경제사정과 관련되어 있는 것 같다. 구체적으로 출신국별로 살펴보면 베트남(67.7%)과 필리핀(85.4)은 도와준 경우가 많았지만, 일본(9.4%)과 중국(20%) 여성은 도와준 경우가 적었다. 본국 가족과 지난 1년간 통화한 횟수는 한 달에 1-2회가 50.9%로 가장 많았다.

즉 여성결혼이민자들은 본국 가족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때로는 경제적인 도움을 주기도 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제결혼의 동기 중 하나로 본국 가정경제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는 점이 이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나는 것이다. 여성결혼이민자들과 본국가족의 접촉은 개인의 심리적인 안정과 관련이 있지만 시댁가족과의 관계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또한 시댁과 친정과의 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

#### (6) 이웃 · 지역사회와의 관계

한국에서의 생활에 도움을 주는 이웃은 몇 명이나 되는지 조사한 결과 전혀 없다가 35.8%, 1~3명이 35.8%, 4~6명이 10.8%, 10명 이상이 13.5%로 나타났다. 한국인 이웃들과 주로 함께 하는 일은 무엇인지 항목별 5점 만점으로 응답하도록 했을 때 일상적 대화가 2.62점, 경조사 돕기가 2.19점, 농사일 돕기가 2.11점, 어려운 일 의논이 2.02점, 생활용품 빌리기가 1.89점, 돈거래가 1.78점, 아기 맡기기와 집보기가 1.57점으로 조사되었

다. 이웃에 대한 생각과 태도를 조사한 결과 소외와 무시를 당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고, 남편과 시어머니가 여성들이 이웃을 만나는 것을 좋아 하지 않는다는 항목에도 대부분의 여성들이 전혀 그렇지 않다 52.9%, 별로 그렇지 않다 19.1%, 보통이다 19.1%로 응답했다.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지역사회 행사 참여 경험 정도를 질문한 결과 48.5%는 전혀 없다, 34.1%는 몇 번 있다, 17.4%는 많이 있다고 응답하여 과반 수 이상의 여성들이 지역사회 행사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사회 행사에 참여하기 어려운 이유를 개방형으로 질문한 결과 아기가 어려서, 몰라서, 생활이 익숙하지 않아서, 시간이 없어서, 초대하는 사람이 없어서, 한국어 못해서, 한국에 온지 얼마 되지 않아서 등의 응답이 있었다.

즉 대부분의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주변 이웃들로부터 도움을 얻는 경우가 거의 없었으며, 이웃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많았다. 또한 지역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도 별로 없었던 점으로 미루어 우리나라에서 다양한 생활문화를 접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 (7) 본국 친구와의 교류

한국에 있는 본국 여성과의 만남 정도를 조사한 결과 1주일에 1번 이상이 43.4%로 가장 많았고, 1달에 1번 정도가 25.5%, 만나지는 못하고 전화만 한다가 22.1%, 전혀 접촉하지 않는다가 4.8%였다. 만나는 장소와 방법을 묻는 질문에 한글교실 51.6%, 친구 집 또는 자기집 34.7%, 교회 33.7%, 집근처 공원이나 시장 15.8%, 각종 모임이나 행사 5.3% 순으로 응답하였다. 본국 여성들과 만나서 주로 하는 대화 내용은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한국생활의 적응문제가 62.2%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자신의 부부관계가 33.8%, 임신/출산/양육 문제가 32.4%, 취업정보에 대한 이야기가 10.1%, 친정에 대한 이야기가 8.8%였다.

본국 여성과의 만남이 부부갈등의 원인을 제공하지는 않는지 조사한 결과 갈등이 없었다가 66.9%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약간 있었다가 21.9%, 종종 있다 9.9%, 자주 있다 1.3%로 나타났다. 본국 여성들과의 만남이 한국생활에 도움이 되는지 질문한 결과 매우 도움이 된다가 31.4%, 그저 그렇다가 30.7%, 도움이 되는 편이다 28.1%, 별 도움이 안된다가 7.8%, 전혀 도움이 안된다가 2.0%로 나타났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은 한국 문화에 적응해 가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익숙한 본국 문화나 이웃들도 자주 접하려고 한다. 본국 친구들과의 잦은 접촉은 이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인식되지만 한국 가족들은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가정 내 불화가 생기기도 한다. 한국 가족들의 좀 더 열린 사고가 요구된다.



### 3. 농촌다문화가족의 적응 문제

#### 1) 문화 차이와 극복

결혼이민 여성들은 출신국의 문화와 한국 문화의 차이를 민감하게 느낄 것으로 예상되었다. 한국과 본국의 문화차이를 얼마나 경험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39.7%가 가끔 경험한다고 응답하였으며, 19.9%는 많이, 23.2%는 보통으로 경험한다고 응답하였다. 남편들에게도 문화차이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47.2%가 문화차이를 가끔 또는 많이 경험한다고 응답하였다. 절반의 여성들이 문화차이를 경험하는데, 특히 어느 영역에서 문화차이를 경험하는지를 살펴본 결과, 여성의 경우 1순위로 생활문화에 대한 차이를 가장 많이 경험하며 시부모와의 관계에서 그 다음으로 많은 차이를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

국제결혼한 한국남성의 경우 1순위로 생활문화에 대한 차이를 경험한다고 가장 많이 보고하였다. 결혼 후 적응과정 중 가장 힘들었던 기간을 보고하도록 한 결과 42.9%가 결혼 후 6개월이 가장 힘들었던 것으로 보고하였다. 결혼적응에 초기 6개월은 민감한 시기로서 이 시기를 잘 넘기면 결혼적응에 성공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문화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떠한 교육을 받았는지를 조사했다. 한국에 입국한 이후 한국어교육을 가장 많이 받았으며, 다음으로 한국음식교육과 한국문화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등록 중인 교육도 한국어교육이 가장 많았으며 한국음식교육, 부부공동참여교육, 한국문화교육이 다음으로 많았다.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교육으로는 직업 및 기술교육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부부공동참여교육과 취미 및 여가교육 경험도 낮은 편이었다. 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를 살펴본 결과 원하는 교육이 주변에 개설되지 않아 참여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자녀를 돌봐야하기 때문에 집을 비울 수 없어서라는 응답, 생활이 바빠 참여하지 못한다는 응답, 참여하는데 필요한 돈이 없다는 응답, 남편이나 시댁식구들이 참여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있었다.

남성들을 대상으로 결혼 이후 가장 필요를 느끼는 교육프로그램이 있는지를 물었을 때, 총 응답자 108명 중 27명이 부인의 국가와 문화에 대한 교육을 1순위로 들었고, 다음으로 26명이 부인 국가의 언어교육을, 18명이 국제결혼에 대한 남편교육을 1순위로 들었다. 2순위와 3순위로 필요성을 느끼는 프로그램으로는 부부갈등 해소 및 대화법이나 자녀양육 및 지도방법 교육,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상호이해교육이 유사한 비율로 보고되었다. 남편들에게 희망하는 교육담당자가 있는지를 물었을 때, 37.7%(43명)가 시군청의 관련 공무원을 선호하였고, 다음으로 30.7%(35명)가 민간인 전문가를 선호하였다.

이와 같이 여성결혼이민자와 그들의 남편은 문화 차이가 크다고 지각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서로의 문화를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서로의 차이를 인식하고, 그 해결방법으로 서로를 배워야 한다고 지적한 것

을 볼 때 앞으로 정부나 민간의 지원이 있다면 차이를 얼마든지 좁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2) 부부관계 갈등과 극복

### (1) 부부갈등

결혼이민자 가정에서 부부싸움을 거의 안 하는 경우는 30.3%, 1년에 1-2회가 12.9%, 6개월에 1-2회가 17.4%, 한달에 1-2회가 28.4%, 일주일에 1-2회 이상이 11%로 나타났다. 이혼이나 별거를 고려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68.9%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고, 결혼을 후회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49.7%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며, 남편을 신뢰하고 있는지, 결혼생활이 행복한지에 대하여 각각 33.8%, 35.9%가 대체로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물론 74%의 응답자들이 남편과 다툰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1/3은 결혼만족도가 높고 나머지 2/3는 보통인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부부갈등에 대한 대처방법으로 비난을 하는 경우가 전혀 없다가 52.4%, 가끔 있다가 28.7%였다. 의견 차이를 말로 해결하는 경우는 41.7%가 가끔 있다고 하였다. 여성결혼이민자와 남편의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은 성격(21.7%), 금전관리 및 소비(15.8%)이며 그 다음으로 생활습관, 사고방식 및 가치관, 의사소통이 각 10%로 나타났다. 부부간 갈등의 주된 원인이 개인의 특성에 따른 차이가 주이다. 즉 부부의 성격과 소비방식, 생활습관, 사고방식과 의사소통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 부부간 갈등의 원인은 가족원간의 관계이다. 시부모 및 친척관계(13.3%), 자녀양육 및 교육과 성격(12.1%), 의사소통(11.0%)으로 밝혀졌다. 자녀양육 및 교육에서 여성들이 응답한 남편 및 시댁식구와의 갈등정도는 전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44.4%로 가장 많았고 가끔 있다가 33.3%, 종종 있다는 18.9%, 매우 자주 있다는 3.3%였다.

구체적으로 자녀양육에 따른 갈등양상을 살펴보았다. 자녀양육과 교육에서 갈등을 겪게 되는 이유로는 자녀교육에서 자신과 남편과의 가치관과 방식의 차이가 42.9%, 자녀의 영양과 건강문제가 26.8%로 나타났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이 부부싸움 후에 주로 상의하는 대상은 본국인 친구(31.5%), 친정 식구나 친척(18.1%), 시댁 식구나 친척(12.8%), 종교단체 성직자(9.4%), 한국인 이웃이나 친구(4.0%), 제3국인 친구나 상담소 상담원(1.3%) 순으로 나타났다.

### (2) 부부간 폭력과 학대

여성결혼이민자 가운데 남편에게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는 응답자 153명 가운데 언어적 학대가 28.1%(43명), 응답자 147명 가운데 신체적 학대가 9.5%(14명), 응

답자 144명 가운데 성적 학대가 9%(13명)로 나타났다. 남편의 학대를 경험한 여성 40여 명을 대상으로 남편의 학대 종류를 조사한 결과 생활비나 용돈을 주지 않는 경우가 35.7%(15명), 외출금지가 24.4%(10명), 의치증이 22%(9명), 송금 금지가 26.8% (11명), 신분증을 빼앗는 행위가 22%(9명)였다.

가정폭력을 경험한 후 도움을 받는 방법을 아는지에 대한 질문에 전혀 모르는 경우가 52.9%로 절반 이상이 해결 방법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정폭력을 경험한 후 사용한 해결방법에 대한 질문에 38.2%(13명)의 여성이 아무런 방법도 사용하지 못했다고 응답하였다. 경찰에 신고한 경우는 35.3%(12명), 상담소 방문 상담이 14.7%(5명), 상담전화를 이용한 경우가 5.9%(2명)였다.

### (3) 결혼생활 평가

실제로 한국남성과의 결혼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알기 위해서 제3자 국제결혼추천 여부를 질문했다. 여성결혼이민자에게 주변인이 국제결혼을 할 경우 권유할 것인지에 대해 물었을 때 50.7%의 여성이 권장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결혼 후 한국에 대한 인상 변화는 비슷하거나 좋아진 경우가 88%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부부갈등은 서로의 성격이나 소비 문제 등으로 일상적으로 겪으며 그 가운데 약 10% 정도는 부부 폭력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었다. 이들 가운데 반 이상이 가정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도움 요청방법을 모르는 상태여서 더욱 문제가 된다. 물론 전반적인 결혼 생활에 대한 평가는 대부분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소외된 채로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여성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도움을 주어야 한다.

### 3) 취업 요구

국제결혼여성들에게 현재 취업하여 임금을 받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19.4%(24명)가 취업 상태라고 응답했으며, 80.6%(100명)가 취업을 하지 않은 상태라고 응답했다. 현재 임금을 받는 일을 하고 있다면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가족의 생계유지와 자녀 교육비 충당(22.7%)을 들었으며, 다음으로 본국의 가족에게 송금하기 위해(20.5%), 생활비를 보충하기 위해(13.6%), 자기발전을 위해(11.4%),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일한다는 응답이 있었다. 현재 취업을 원하지만 취업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31.2%가 자녀양육과 한국말이 서툴러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다음으로는 남편이나 시댁 식구의 반대(13.5%),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12.7%), 집안일을 돌볼 사람이 없어서(7.1%) 취업하지 못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취업을 하고 싶은 경우 필요로 하는 지원으로 43.0%(58명)가 적절한 일자리를 찾아서 알려주길 원한다고 응답했으며, 19.7%(26명)는 훈련비 지원을, 17.8%(24명)는 창업교육을, 14.0%(19명)는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을 원했다. 가장 선호하는 취업자격증

은 컴퓨터 관련 자격증(54명)이었으며, 다음으로 조리사 자격증과 미용사 자격증을 선호하였다. 이 외에도 가사도우미나 간병인, 미장공, 원예, 도배공의 순서로 자격증 취득을 희망하였으며, 기타 취득을 원하는 자격증으로는 관광통역 등이 있었다.

#### 4) 영농 지속 여부

앞에서 자녀들에게 영농을 기대할 것인지를 질문했을 때 대다수가 부정했었다. 이번에는 농촌지역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경우, 앞으로 계속 농사를 지을 것인지 묻는 질문에 34.9%(44명)는 계속 농사를 지을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 65.1%(82명)는 앞으로 농사를 짓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농사짓는 것을 원하지 않는 이유는 몸이 힘들고 고되며 수입이 많지 않기 때문이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결혼이민자 가정의 남편들에게 부인이 현재 농사일을 얼마나 돕고 있는지 물어본 결과 51.9%(55명)가 집안살림만 담당한다고 응답했으며, 바쁜 시기에만 잠시 도와준다는 응답이 23.6%(25명), 지속적으로 가벼운 농사일을 담당한다는 응답이 20.8%(22명)이었다.

앞으로 부인이 농사일에 참여를 희망하는 정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38.9%(42명)는 계속해서 집안살림만 담당하기 원한다고 응답하였고, 38.0%(41명)는 바쁜 시기에만 잠시 도와주기 원한다고 응답하여 76.9%의 남편들이 부인들의 적극적인 농업참여를 바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으로 가벼운 농사일을 담당하기 원하는 경우와 지속적으로 함께 농사일을 하기 원하는 경우는 각각 16.7%(18명), 6.5%(7명)로 나타났다. 정부에서 영농교육을 실시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42.9%(48명)가 원한다고 응답한 반면 57.1%(64명)가 원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영농교육을 원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한 교육을 원하는지에 대한 추가 질문에는 주로 현재의 농사품목과 관련하여 더 앞선 기술을 전수받거나 수익이 높은 작물의 재배법을 배우고 싶어 했다. 같은 질문에 대해 남편의 경우 46.2%(49명)가 원한다고 응답한 반면 53.8%(57명)가 원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여 부인과 비슷한 수준의 수요를 보였다. 부인의 영농교육을 원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을 원하는지에 물었을 때 채소 등 밭농사법(35.0%), 특화작물 재배법(20.0%), 논농사법(15.0%), 하우스재배법(6.7%)의 순서로 선호를 보였다. 영농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할 경우 어떤 형태를 원하는지 남편에게 물었을 때 40.6%(26명)가 한 동네 사람을 한 가정에 모이게 해서 지도하는 소집단 지도를 선호했으며, 비슷하게 37.5%(24명)가 공공건물에 모여서 지도하는 집단지도를 원했다.

## 4. 적응문제의 극복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결혼이민 여성은 문화차이로 인해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경험

하고 있으며, 결혼과 더불어 엮인 여러 역할 수행에서 오는 적응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 적응문제는 스트레스를 주어 가벼운 심인성 증상을 거쳐 우울증에 이르는 등 심각한 심리적 후유증이 있을 수 있다. 적응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은 국제결혼한 여성만이 아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의 생활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데서 오는 소통의 어려움을 경험해야 한다. 시부모도 역시 문화차이로 인해 며느리의 정서나 생활방식을 이해하기 어렵다. 다른 가족들이나 친족들도 마찬가지이다. 소통의 단절과 오해가 불러오는 갈등과 관계의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없고 시간이 가면서 더 증폭될 수 있다.

문화차이는 크고 엄청난 문제가 아니라 사소한 생활양식의 차이이기 때문에 한 번의 강이나 처방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에 농촌다문화가족의 여성, 자녀, 가족의 심리적 문제를 극복하는 여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농촌다문화가족의 적응을 위한 정책의 방향은 5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가족 옹호적 정책을 실시한다. 둘째 여성의 인권존중 및 보호정책을 실시한다. 셋째 농촌인력 육성책을 실시한다. 넷째 다문화주의적 통합 정책을 실시한다. 다섯째 국가의 적극적 지원과 개입을 실시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한글교육, 한국문화교육, 요리교육, 컴퓨터교육, 자녀교육, 부부교육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이 실시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수혜정도와 만족도에 대한 객관적 평가자료가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지원사업의 양과 종류가 많다고 해서 모든 지원 사업이, 모든 결혼이민자들에게 원활하게 제공되고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현재 진행 중인 지자체 사업들의 문제점과 앞으로 수정 또는 보완되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시성, 형식적 사업으로 걸보기에만 거창하고 내실이 없다는 사업들을 수정해야 한다. 둘째, 일회성 사업을 지양하고 사업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셋째, 실제로 여성결혼이민자와 그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는, 질 높은 교육프로그램이 준비되어야 한다. 넷째, 기존 사업에 대한 비용 대비 효과를 정확하게 평가하여 보다 효율적인 정책과 사업을 개발해야 한다.

## [참고문헌]

- 광주여성발전센터(2003). 외국인 주부 실태조사. 광주여성발전센터 발행 자료집. 미간행.
- 김정선(2004). 이주노동자 남성과 한국 여성의 '가족'만들기를 통해 본 지역 가부장제의 변형 및 재구성. 국가행단 시대 변화하는 아시아의 여성. 이화여자대학교 창립 118주년 기념학술대회 자료집. 미간행.
- 김애령(1998). 충남 거주 조선족여성의 결혼과정과 적응에 관한 연구. 대전: 충남도청.
- 민가영(2004). 로컬 가부장제와 글로벌 자본의 충돌과 공모: 중국 조선족 공동체 해체 주범으로 재현되는 중국 조선족 '여성 유실'을 중심으로. 국가행단 시대 변화하는 아시아의 여성. 이화여자대학교 창립 118주년 기념학술대회 자료집. 미간행.
- 민경자(2003). 충남거주 외국인 주부의 정착 지원방안 연구.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 연구보고서.
- 석원정(2004). 국제결혼에 대한 이해. 여성과 이주 현실. 사단법인 인천여성의 전화 본회 10주년 및 여성주간 기념 이주여성문제개선을 위한 정책제안 토론회 자료집. 미간행.
- 성지혜(1996). 중국교포 여성과 한국남성간의 결혼연구. 대구 효성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여성학과 석사학위 논문.
- 위흠(안양진진상 복지관 이주여성쉼터)(2003). 국가인권회 주최 국제결혼과 여성폭력에 관한 정책제안을 위한 원탁토론회 자료집. 미간행.
- 이금연(2001). 여성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위한 활동. 외국인이주노동자를 위한 국제민간 포럼. 2001. 12.12-14.
- \_\_\_\_\_ (2003). 이주여성의 결혼과 가족. 국경과 인종, 피부색과 문화의 차이를 넘어 평등과 연대를 향해. 대전포럼(이주노동자지원단체연대) 이주노동자운동 정책심포지움 자료집. 미간행.
- 이순형·문무경·최연실·이숙정·정하나·우현경(2006). 농촌여성결혼이민자 정착지원방안. 농림부.
- 전수현(2002). 필리핀 노동자와 결혼한 한국 여성의 주변적 지위. 서울대학교 대학원 인류학과 석사학위논문.
- 조성원(2000). 외국인 노동자와 노동계층 한국여성의 결혼사례를 통해 알아본 새로운 마이너리티의 형성과 재생산. 한양대학교 대학원 문화인류학과 석사학위논문.
- 최근정(2003). 우편주문신부 그 현황과 성매매로서의 의미. 국제 성매매근절 운동팀 강연회 자료집. 미간행.
- 홍기혜(2000). 중국 조선족 여성과 한국 남성간의 결혼을 통해 본 이주의 성별 정치학.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여성학과 석사학위논문.